

회고(回顧) 올해년(乙亥年) 문단(文壇) 총관(總觀) —창작계(創作界) 편(篇)

우리가 언제나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옛일을 회고하여 봄은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들추어 기억 속에 새겨두려는 것보다도, 그것들 속에서 앞날의 교훈을 추출하자는 것일 것이며, 그리함으로써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의의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올해년의 창작계를 총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총관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작자와 작품의 이름의 나열을 되도록 피하고 전체적 동향만을 거시하고 비판하여 앞날의 거울을 삼고자 한다.

우리는 수 년을 두고 문단부진의 절규와 신인 냉우의 불평을 거의 불감증이 되도록 들어왔으며, 금년에도 또한 그랬다. 그러나 나는 금년의 창작계는 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진하지 않았으며, 신인들도 냉우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주로 신문소설에 주력하고 있는 기성 작가들은 제외하고라도 이태준, 이효석, 박화성, 박태원, 유진오, 이무영, 주요섭, 엄홍섭, 이석훈, 안희남, 이복명, 강경애, 김말봉, 함대훈, 김유정, 박노갑, 계용묵, 박영준, 최인준, 김소엽 등 기성작가·신진작가 20여 명이 거의 4, 5편씩의 창작을 발표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양적으로는 불소(不少)한 수확

이었다.

그러나 그 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양과 상부하지 못함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양적으로는 이처럼 풍부한 수확이 질에 있어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빈약하였는가. 우리는 금년 1년의 창작계에 나타난 몇 가지 경향을 통하여 그 원인을 탐구하여 보자.

우리는 창작계의 질적 저열의 이유를 지금까지 많은 작가가 그리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바와 같이 작가의 생활 불안정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작품의 재능이므로 생활 불안정과 같은 이런 외적 조건은 창작의 양적 감소는 몰라도 질적 저열의 결정적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도의 창작계의 질적 빈약의 원인을 좀 더 내면적인 곳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나는 그것의 제일 큰 원인으로 거의 만성이 되어 있는 우리 작가들의 개념적 무장과 사이비 사실주의에의 노예적 순종을 들고자 한다.

그러면 작가의 개념적 무장은 어찌하여 금년도 창작계의 질적 빈약의 원인이 되는가.

그것은 작가가 그의 소재에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작가는 개념의 무기로 소재를 분석하고 비난하기 전에 심령으로 소화하여 그것을 다시 구성적 체험을 통해서 구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개념은 어느 일정한 방식 아래 현실을 정리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작가가 개념으로 무장하고 소재를 분석·비판할 때 그 소재는 어느 일정한 유형 밑에 정리된다.

이리하여 작가가 부르주아의 착취와 횡포란 개념을 가지고 그의 소

제에 대한 때, 부르주아는 반드시 똥똥보요, 색마요, 도척(盜賊)이가 되며, 프롤레타리아는 전부가 양과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되고, 다 제법 사회주의자화하게 된다. 그리고는 언제나 정당한 프롤레타리아가 전부 악한 행동만 하는 부르주아를 구타 또는 살해하거나 그의 집에 방화함으로써 결말을 짓는다.

따라서 성격과 스토리가 어느 일정한 형식에 고정되어 작가의 개성은 그 영자(影子)를 감추게 되며, 한 작품은 그곳에 담긴 개념과 사상의 대소로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자기가 포획한 개념과 사상이 가장 진보적이라는 독단 아래 자기의 작품도 역시 진보적인 작품이요, 따라서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자부하게 된다.

이무영, 엄홍섭, 이복명씨 등의 소위 경향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서명이 없으면 각기 그 작자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나 스토리가 상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을 그 속에 노출되어 있는 개념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이 진보적이라는 단정 아래 그 작품들도 또한 진보적 작품이 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개념의 지적 내용이 아니라 그곳에 나타난 작자의 개성이다. 그리고 이 작자의 개성이야말로 그의 작품과 성격과 스토리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자가 그의 작품에 개성의 낙인을 찍으려면 그는 먼저 개념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작품의 소재는 그것이 개념에 의하여 규정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함으로써만 그는 언제나 발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그가 세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려면 개념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은 세계, 즉 생성발전할 가능성을 포화하고 있는 아직 정신적 소유에 응고하지 않은 세계에 침잠하여 그것을 다시 한 번 무지의 세계로써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리함으로써만 작가는 소재를 심령으로 소화할 수가 있으며, 그 심령으로 소화한 것을 다시 예술적 활동, 즉 구성적 상상력을 통하여 형상화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강렬한 개성의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향파 작가들이 개념으로 무장을 하지 않았을 진대 그들은 훨씬 더 우수한 작품을 우리에게 읽힐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나는 오는 해에는 이무영, 엄홍섭, 이복명, 박화성, 유진오씨 같은 기성작가와 최인준, 김소엽 같은 신진작가들에게 개념의 무기를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앞에서 나는 경향파 작가들의 개념의 무장에서 오는 비개성화적 경향을 말하였다. 그러면 비경향파 작가들에게는 각기 뚜렷한 개성이 나타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경향파 작가들에게서와 동양(同樣)으로 우리의 비경향파 작가들에게서도 뚜렷한 개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경향파와 비경향파의 개성의 결핍은 각기 그 유래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향파 작가들의 개성의 결핍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일반적 경향인 개념적 경화에서 오는 것이나, 비경향파의 그것은 개념적 경화에서 보다도 그들의 구상적 정신활동의 쇠약에서 오는 것이다(경향파 작가들은 구상적 정신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강렬한 구상적 정신활동이 없는 곳에 성격과 스토리가 있을 수 없으며, 이리하여 소설이 신변잡거나 소품문으로 퇴락할 때 그곳에 우리는 강렬한 개성을 엿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경향파 작가들의 개성의 결핍과 그들에게서도 금년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수확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구상적 정신활동과 야심적 의도의 결핍에서 오는 소품화적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니, 그들에게도 또한 이 점에 대한 반성을 촉(促)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후로 우리는 앞에서 거시한 금년도에 있어서 창작계의 질적 불황의 원인의 하나인 사이비 사실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실주의가 사물의 사실을 그리려는 데에는 우리는 아무런 반대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의 대부분이 더욱이 경향파 작가에 있어서 이 사실주의도 한 신앙이 될 만큼 그들의 두뇌를 점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실주의에 대한 이해는 심히 불충분한 것으로 그들은 사물의 진실을 그리려고 하면서도 진실과 정확을 혼동하고 있어 그릇된 사실주의의 가장 빠지기 쉬운 쇠말주의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한 작품의 진실은 그 작품의 감정적 반응도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은 사물의 정밀한 복사가 아니라 도리어 간결화와 생략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오는 해에도 그의 작품행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작가는 이 점에 대한 심심한 이해를 가져 쇠말주의에서 벗어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동》, 3권 12호, 1935. 12. 15)